



Global Market Report 14-015

2014.5.16

인도 신정부 경제정책 방향 전망과 시사점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목 차

요 약

I. 인도 총선 결과 분석 / 1

- | | |
|---|----------------------|
| 1 | 1. 총선결과와 인도 정국 변화 |
| 2 | 2. 신정부 내각 주요 인물 및 성향 |
| 6 | 3. 총선결과의 의의 |

II. 인도 신정부의 주요정책 전망 / 8

- | | |
|----|----------------|
| 8 | 1. 경제 통상 정책 전망 |
| 14 | 2. 투자 정책 전망 |

III. 인도 신정부의 주요 개혁 과제 / 18

- | | |
|----|---------------------------|
| 18 | 1. 정부 부정부패 |
| 20 | 2. 인도 세제개편(GST, MRP, SAD) |
| 23 | 3. 인도 내수시장 개방 |
| 25 | 4. 인도 산업 육성 |

IV. 신정부 출범에 대한 기대와 평가 / 27

- | | |
|----|-------------------------|
| 27 | 1. 신정부 출범에 대한 인도 국내외 반응 |
| 32 | 2. 인도 진출 우리 기업의 반응 |
| 35 | 3. 향후 인도 경제 전망 |

V. 한국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 37

- | | |
|----|------------------------|
| 37 | 1. 신정부 경제 정책에 따른 기회 요소 |
| 38 | 2. 신정부 경제 정책에 따른 위협 요소 |
| 39 | 3. 한-인도 교역 및 투자 전망 |

요 약

제 16대 인도 총선결과, 인도국민당(BJP(Bharatiya Janata Party) 중심의 전국민주연합(NDA(National Democratic Alliance))연정이 국민회의당(INC(Indian National Congress)) 중심의 통일진보연합(UPA(United Progressive Alliance))을 압도적으로 누르고 10년 만에 재집권하게 되었다.

이번 정권교체는 인도 유권자들이 집권 2기 동안 국민회의당의 경기침체, 고물가, 부패 스캔들 등 실정을 겪고 있는 가운데 향후 인도를 강력한 국가로 이끌 수 있는 책임자로서 나렌드라 모디를 선택한 결과로 풀이된다.

과거 주총리 시절 모디의 정책을 볼 때 신 정부의 가장 큰 중점사항은 부진한 인도 경제의 회복이 될 것이며 기업활동 지원에 정부의 모든 지원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인도 신정부는 노동집약적 제조업 육성과 기업환경 개선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위하여 세계적 수준의 산업특구를 설립하고 복잡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각종 규제를 철폐하여 중국을 넘어선 글로벌 제조업 허브로 도약하기 위해 나설 전망이다.

더불어 국내외 자본을 활용하여 고속도로 및 공항, 항만의 신축공사를 추진하고 인도 전역에 100개의 스마트 도시 건설과 천연가스 수송배관을 설치하는 등 인프라 시설 구축을 강화할 계획이다.

인도 신정부의 적극적인 외국인투자유치 정책도 전망된다. 인도국민당은 95% 이상이 영세업자 위주인 멀티브랜드 소매유통분야를 제외한 전 분야에 대해 외국인투자유치를 확대할 것을 밝힌 바 있다.

인도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인도시장 접근전략이 요구된다. 우리기업은 인도 정부의 제조업 육성정책을 활용하여 인도 시장을 수출시장 뿐만이 아니라 제조기지로 활용하여 중동·유럽·아프리카 등으로 수출을 하는 인도 생산기지화 전략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반면 중국·일본 등 경쟁국 기업들도 인도 신정부의 경제회복 정책에 따라 투자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인도 진출을 가속화할 전망이므로, 최대시장으로 성장할 인도시장 진출을 위한 우리기업의 면밀한 준비가 필요하다.

I. 인도 총선 결과 분석

1. 총선결과와 인도 정국 변화

□ 인도 제16대 총선 결과, 인도 국민당(BJP)중심의 NDA 연정 압승

- 힌두 민족주의 성향의 제1야당인 인도 국민당(BJP)의 압도적 우세 속에 여당인 국민회의당(INC)을 제치고 10년 만에 정권 교체를 이룸.
 - * UPA¹⁾연정의 최대 정당은 국민회의당(INC²⁾)이며, NDA³⁾연정의 최대정당은 인도국민당(BJP⁴⁾)임
- 금번 승리의 가장 큰 공로자는 경제발전의 대표격인 인도국민당의 나렌드라 모디(전 구자라트 주총리)이며, 그는 향후 유력한 총리 후보임
 - 나렌드라 모디 총리 후보는 'Initiator, Innovator, Implementer'의 강력한 리더십을 선거 캠페인 로고로 채택
 - 글로벌 경제 위기의 여파로 인한 경제 불안과 루피화 가치 하락 및 5% 이하의 낮은 경제 성장률 등의 문제를 보이고 있는 인도는 구자라트주의 눈부신 경제발전을 이끌었던 나렌드라 모디 총리 후보에게 높은 기대를 걸고 있음.
- 이번 총선에서 탄생된 신정부는 과감한 경제개혁을 통해 인도 제2의 경제 도약기 구현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 예상
- 국민회의당은 집권 2기 동안 보여준 실정과 인도 국민들의 네루가문 등으로열층에 대한 염증과 인도 경제위기를 극복시킬 카리스마 있는 인물의 부재로 이번 총선에서 실패한 것으로 평가됨.

1) United Progressive Alliance (통일진보연합)
2) Indian National Congress(인도국민회의)
3) National Democratic Allicance (전국민주연합)
4) Bharatiya Janata Party(인도국민당)

<연정 구성 최종 결과표>

정당명	의석수
BJP (Bharatiya Janata Party)	284
SS (Shiv Sena)	19
TDP (Telugu Desam Party)	15
LJP (Lok Jan Shakti Party)	6
SAD (Shiromani Akali Dal)	4
RLSP (Revolutionary Socialist Party)	3
SWP (Samajwadi Party)	2
AD (Apna Dal)	2
NPF (Naga Peoples Front)	1
NPF (Naga Peoples Front)	1
NPP (National Peoples Party)	1
PMK (Pattali Makkal Katchi)	1
NDA 연정 계	339
Cong (Indian National Congress)	44
NCP (Nationalist Congress Party)	5
RJD (Rashtriya Janata Dal)	4
IUML (Indian Union Muslim League)	2
JMM (Jharkhand Mukti Morcha)	2
KECM (Kerala Congress (M))	1
RLD (Rashtriya Lok Dal)	0
JKNC (Jammu and Kashmir National Conference)	0
BOPF (Bodaland Peoples Front)	0
BVA (Bahujan Vikas Aghadi)	0
SJD (Socialist Janata Party)	0
UPA 연정 계	58
연정 외부 지지세력 계	146 (AAP: 4)
총계	543

* 자료원 : 뉴델리 무역관, 현지 언론 종합

2. 신정부 내각 주요 인물 및 성향

□ 신정부 총리

○ Narendra Modi

- 인도 정치가로서 제 14대 Gujarat 주총리. 2014년 인도 총선에서 BJP당을 대표하는 총리 후보자
- 2001년 전임자의 사퇴로 Gujarat 주 총리직에 오른 모디는 Gujarat 주 경제성장에 많은 기여를 하였으며 역대 최장기간 주총리를 역임.
- Gujarat 주총리로 있는 동안 혼다 모터스의 공장 건립을 유치하고 인도 국영 정유회사 (Indian Oil Corporation, IOC) koyali 정유공장의 확장을 유도하는 등 대규모 투자유치 성과를 이뤄냄.
- 최근 인도의 경제성장을 저하가 주요 이슈가 되면서 모디의 이러한 정책과 업적이 부각되며 BJP 정당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이끌어냄.



자료원 : 위키피디아

□ 경제 · 통상 · 투자 정책 관련 주요 인물 및 성향

▶ 복지보다는 개혁정책을 통한 경제 활성화 추진

- 물가 상승을 억제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최우선 목표
- 건설 프로젝트 등 대규모 인프라 투자 및 자본 지출 예상
- 보조금 지원 및 세제혜택 등 친기업 정책 시행.

▶ 구자라트 주에서와 같은 적극적인 투자 유치 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

- 영세상인들의 표심을 의식해 멀티브랜드 소매점에 대한 FDI 허용은 시 기상조라는 입장으로 해당 분야부터 단계적인 개방을 검토

① Arun Jaitley

- 뛰어난 선거 전략기획가로서 BJP 당과 나렌드라 모디에게 여러 번 승리를 안겨주어 이미 그 능력을 인정받음.
- 동시에 1998년부터 2004년까지 상원 야당 총재, 상공부 및 법무부 장관을 역임한 야당의 지도자로서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어 다수가 차기 재무부 장관 후보로 지목하는 인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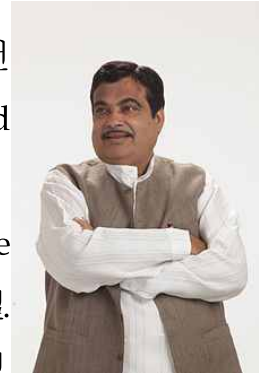


자료원 : 위키피디아

- 지난 UPA 정권의 세금소급과세제도와 투자분야 지출축소가 인도 투자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비판하고 있어, 집권 후 적극적인 국내외 투자 유치 및 지출 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

② Nitin Gadkari

- 2009년부터 5년 간 BJP당 대표를 역임한 원로의원으로 전 Maharashtra주 공공사업국장관, 전 National Rural Road Development Committee(NRRDC) 회장 등을 역임함.
- Maharashtra주 장관 시절 Yashwantrao Chavan Mumbai-Pune Expressway를 비롯한 수많은 도로와 고속도로, 고가도로를 건설. 사기업의 인프라 분야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민영화를 지지로 유명
- 모디 당선시 산업부 혹은 국방부 장관을 맡을 것으로 예상



자료원 : 위키피디아

③ Sushma Swaraj

- 25살의 어린 나이에 Haryana 주총리를 역임하고 능력을 인정 받아 Delhi 총지사로서도 정무를 수행. 하원의원 6선, 입법부 의원 3선 경력에 15대 하원에선 야당 총재를 역임.
- 그 외에도 2000년 정보방송부 장관, 2003년 보건가족복지의회의장 등에 재임하며 풍부한 리더십 경험을 가지고 있음.
- 선거 후 결성될 모디 내각에서 우먼파워의 중심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외교부를 담당할 것으로 예상됨.



자료원 : 위키피디아

④ Sushil Kumar Modi

- 전 Bihar 주 부장관과 재정부 장관을 역임. 2011년 7월에는 상품 및 서비스 세금 제도 시행을 위한 주정부재정장관위원회 회장으로 지명됨.
- 힌두민족주의 단체 Rashtriya Swayamsewak Sangh(RSS)의 장기 회원으로 활동 중임.
- 총선 후 Modi 정권에선 농업부 장관의 역할을 수행하게 될 가능성이 있음.



자료원 : 구글 이미지

⑤ B. C. Khanduri

- Uttarakhand 주총리 두 차례 역임, 4선 하원 경력
- 2003-04년 Vajpayee 정부 하에서 교통부 장관을 역임하며 국가 고속도로 개발 계획을 실행했음. 36년간 인도 육군 공병단에 몸담았음.
- 육로, 해로, 항공을 통한 수송 관련 부문을 모두 통합하여 새로이 탄생할 인프라스트럭처부 장관 후보



자료원 : 구글 이미지

⑥ Piyush Goyal

- 49세라는 비교적 젊은 나이에 비해 27년의 긴 정치경험을 가진 현 BJP당 의원이자 재무책임자
- 유명한 투자은행가로 인도 최대 상업은행 the State Bank of India의 이사회 멤버로서 인도 내 기업들에 경영 전략과 성장에 대해 조언을 해왔음.
- 인도 최대 무역 상공단체 (Indian Merchants Chamber, IMC)의 일원이며, 교육 및 복지 등 다양한 NGO활동도 병행하고 있음.
- 현재 Modi 측 웹, 모바일, 소셜미디어를 통한 온라인 선거 캠페인 전략을 총괄하는 핵심 인물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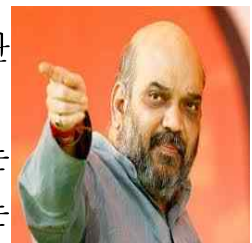


자료원 : 위키피디아

□ 경제 · 통상 · 투자 정책 관련 Modi 측 핵심 참모 및 성향

① Amit Shah

- 모디가 주총리로 있는 Gujarat에서 내무부 장관 (Minister of State for Home Affairs)직 수행
- 지난 십년간 Modi의 선거에서 전략을 수립하고 도와주는 역할을 하였으며 모디가 어려울 때마다 항상 찾아가는 최측근
- 한때 주식 브로커로 활동하기도 했으며, Ahmedabad District Cooperative Bank의 회장직을 역임한 적이 있을 정도로 재무 관련 경험이 풍부함.



자료원 : 구글 이미지

② Kuniyil Kailashnathan

- KK로 불리며 모디의 Principal Chief Secretary로서 모디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며 Amit Shah와 함께 정권을 구성할 핵심 인물로 꼽힘.
- Indian Administrative Service (IAS) 공무원 출신으로 정부와 산업 간 가교 역할을 해왔으며, Gujarat 주 내 항구의 민영화에 깊이 관여함.
- 구자라트 주의 주요 행사이던 Vibrant Gujarat Global Investor Summit 입안



자료원 : 구글 이미지

③ Anandiben Patel

- 모디 후보의 측근 각료 중 한 사람으로 지난 2007년부터 구자라트주의 Cabinet Minister of Road and Building, Revenue, Urban development and Urban Housing, Disaster Management and Capital Projects을 맡고 있음.
- ‘공무원들은 투자가들을 괴롭히지 말라’라고 말했던 그녀의 발언을 통해 모디 후보의 투자 정책을 엿볼 수 있음.
- 현 Gujarat 주총리인 모디가 수상이 될 경우, 차기 주총리가 될 것으로 예상



자료원 : 구글 이미지

3. 총선결과의 의의

□ 강한 정부, 새로운 인도를 바라는 유권자들의 심리가 정권교체를 이룸

- 경기 침체, 고물가, 부패스캔들 등으로 인해 유권자들은 현상황을 타파하고 변화를 이끌어 달라는 기대를 실어 인도국민당을 지지
- 인도국민당은 경제성장 및 힌두중심을 대표 공약으로 내세워 과거 위대한 인도로의 회귀를 주장함.
 - * 힌두근본주의를 표방하는 인도국민당의 집권은 인도 내 무슬림들의 처우악화와 이로 인한 사회적 분열발생에 대한 우려를 가지게 함.
 - * 인도국민당은 모디의 강력한 추진력을 강조하는 “Time for Change, Time for Modi” 슬로건으로 선거 운동을 추진

□ 카스트 · 인종 · 공산주의 등 구시대적 이슈가 총선에 미친 영향은 미미

- 2009년 총선에 이어 인도 정치에서 전통적인 이슈가 되었던 카스트 · 인종 · 공산주의 등의 문제는 총선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함.
- 이보다는 경제성장, 고용창출과 같은 경제문제 그리고 부패청산과 투명하고 효율적인 거버넌스의 문제가 새로운 인도정치의 이슈로 떠오름.

□ 사상최대의 젊은 유권자들의 표심을 잡기에 성공

- 경기 부진으로 인해 대졸 실업률이 10%에 이르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일 자리 창출을 공약하는 등 젊은 유권자의 표심 확보에 성공
- 이코노미스트는 변화를 바라는 젊은 중산층은 집권여당이 제시하는 복지 제도보다 야당연합에서 내세우는 경제성장을 통한 일자리 확대에 공감하고 있다고 분석
- * 처음으로 투표권을 행사한 18~22세 사이의 젊은 유권자는 전체 유권자의 15%에 달하는 약 1억 2,000만 명임

□ 선거운동의 새로운 패러다임, SNS · 모바일 활용

- 이번 선거에서 젊은 유권자들은 SNS와 모바일 등 디지털매체를 이용해 적극적인 선거운동을 벌임.
- 각 정당별 공약 및 선거추이는 물론 범죄이력을 가진 후보들에 대한 홍보 수단으로 활용

II. 인도 신정부의 주요정책 전망

1. 경제 · 통상 정책 전망

□ 제조업 육성·수출장려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주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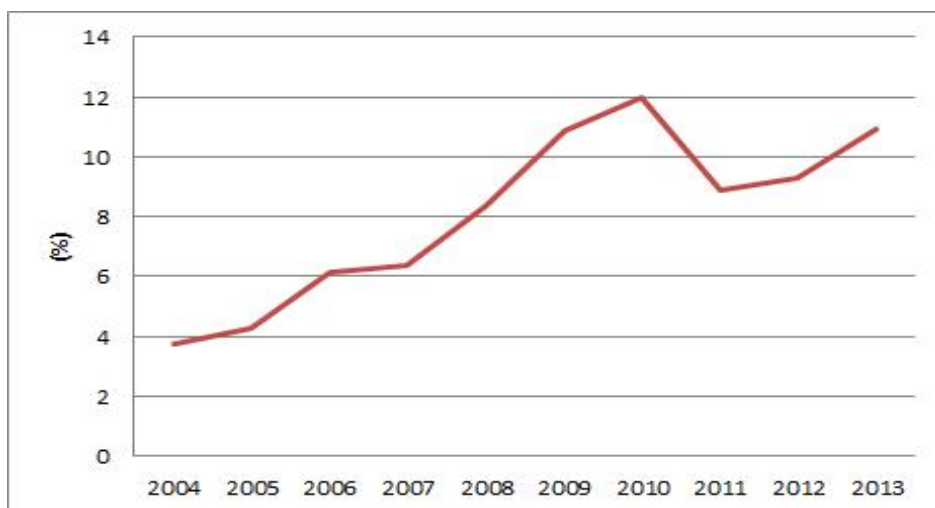
- 일자리창출과 친기업적 사업 환경 조성을 통한 경제 활성화
- 제조업육성 및 인프라개발을 통한 경기회복
- 물가안정과 세제간소화를 통한 소비심리 개선
- 수출장려를 통한 대외무역수지적자 감축

- 최근 총 저축률이 국내 총투자율을 하회하고 있어 신정부의 해외투자 유치를 위한 산업개방 노력이 가속화될 전망
 - 신정부는 경제성장을 정책기조로 삼아 멀티브랜드 소매유통분야를 제외한 전분야에 대해 FDI 확대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며 적극적인 FDI 유치를 통해 경기활성화 추진 예상
 - 전 여당이었던 국민회의당도 FDI 유치를 통해 경상수지 적자를 줄이고 경제 활력을 유지하려는 정책방향을 가지고 있었던 만큼, 야당도 신정부의 FDI 확대 추진 정책에는 별다른 이견을 보이지 않을 것으로 보임.
- 경제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는 인프라 부문에 대한 투자를 장려함으로써 제조업의 성장 및 활성화를 추진
 - 산업 기반이 되는 도로, 교량, 철도, 고속도로, 항만, 공항 등 전반적 분야의 인프라 건설을 추진 전망
 - 인도 주요 도시 간 산업회랑을 만들어 물류 접근성을 높이고 물류의 신속한 수송을 위해 화물 열차와 수송 열차의 노선을 확장하고 운행 열차 수를 확대하는 등 경제발전에 걸림돌인 낙후된 물류개선에 집중 예정
 - 잠무와 카슈미르 등 소외지역과의 연결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고속도로를 건설하며 이를 위해 해외 및 국내 자본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계획
 - IT 기술로 연결되는 도시를 구상 중이며 100여개의 스마트 시티를 개발하여 이를 기반으로 인도 IT산업을 발전시킬 계획

○ 물가상승억제를 통한 경제안정 추구

- 신정부는 10%가 넘는 물가상승률을 억제하여 경제를 안정화 시키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음.
- 이를 위해 물가안정펀드를 조성하고, 단일한 국가농업시장을 형성하는 한편, FCI(Food Corporation of India)의 분리를 통하여 조달, 저장, 유통과정을 효율적으로 개선시킬 것을 발표함.

< 지난 10년간 인도소비자 물가 상승률 >



* 자료원 : Thomson Reuters Datastream

○ 인도에서 사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 기존의 복잡한 행정절차를 단순화하고 불필요한 장애물들을 제거하여 친기업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인도에서 사업하기 힘든 요인 중 고질적으로 뽑혀왔던 인프라 환경 개선 및 안정된 전력 공급을 확보하려 할 전망
- 대형 프로젝트의 경우 중앙정부와 주정부 간 단일행정창구를 마련하여 원활한 진행을 유도하고 환경개발승인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지연 없는 신속한 업무처리 등을 추진 예정

○ 세제 간소화, 상품서비스세(GST) 도입 및 산업별 조세인센티브 제공

- 기존의 소비세와 서비스세를 통합한 상품서비스세(GST)를 도입해 조세행정 효율성을 증진하고 납세자의 편익을 추구할 예정이며 R&D 투자에 대한 조세 인센티브 제공해 기술집약적 산업을 육성할 것으로 전망

- 제조업육성 및 외국인투자유치 추진
 - 신정부는 세계적 수준의 투자 및 산업특구를 세워 중국을 넘어선 글로벌 제조업 허브로 도약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외국인투자 친화적인 정책추진과 인도의 각 주별 외국인투자유치활동 강화 예정
 - 또한, 제조업 육성 및 외국인투자유치를 통한 고용기회 확대도 신정부의 주요 추진사항 중 하나
- 에너지자원 개발
 - 국가적 차원의 포괄적 에너지 개발 정책을 수립하여 향후 경제발전에 필요한 원동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함.
 - 가스, 수력, 풍력, 석탄, 원자력 에너지 개발을 강조며 구자라트주에서 성공적인 태양력 에너지산업을 전 인도 지역으로 확장 할 것으로 예상됨.
- 외교통상분야에서는 세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적응하고 더 넓은 시야와 역할을 확보하기 위한 개혁 시행 예상
 - 외교정책은 경제, 문화, 정치, 안보 이해관계, 지역과 세계를 아우르는 정책을 추구할 것으로 전망되며 인도 국가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해 NRIs, PIOs, 전문가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예정
 - 신정부는 전정부가 인접국과의 외교정책에서 성공적이지 못했던 점을 언급하며 남아시아의 성장과 개발에 관심을 기울일 것으로 전망되며 강대국과의 이해관계에 끌려 다니지 않고 인접국과의 친교형성에 집중할 전망
 - 다만, 국방 문제에 있어서는 강경한 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되며 중국 및 파키스탄과의 분쟁지역에 군사력 증강 또는 기타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
- 과학 기술 혁신 방안
 - 지적재산권보호제도를 수립하고, 자율적인 기술이전 기구를 설립함.
 - 빅 데이터 관련 기관을 설립해 다가올 빅 데이터의 시대를 준비함.
 - 농촌개발을 위한 기술 조직을 설립해 농업기술을 업그레이드하고자 함.
- 대외무역수지적자 축소 노력
 - 늘어나는 대외무역수지적자를 축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수입의존도를 낮추고 인도산 고부가가치 상품의 수출을 장려함.

- 국제지역공동체 기구의 적극적 참여를 통한 지역경제활성화 추구
 - 인도는 SAARC(남아시아 지역협력연합), ASEAN(동남아시아 국가연합)과 같은 지역협력연합기구 및 BRICs(브라질, 러시아, 인도, 러시아 4개국), G20(주요 20개국 정상들의 모임)과 같은 주요 글로벌 경제모임에 적극 참여하여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할 전망

< 6대 당면과제와 BJP 공약 >

▶ 물가안정

- 높은 인플레이션과 고금리를 유발하는 악순환의 고리 끊기
- 매점매석 근절을 위한 특별법 운영
- 물가안정펀드 조성
- FCI(Food Corporation of India) 분리를 통한 저장, 유통 과정의 효율성 증대
- 농부들에게 실시간 정보제공
- 단일 국가농업시장 형성

▶ 고용창출

- 노동집약적 산업인 제조업, 관광업 육성
- 농업 및 관계 산업의 경쟁력 강화, 유통업 육성
- 고용창출을 위한 인프라 및 주택개발
- 다양한 직업훈련 프로그램
- 농촌과 도시에 기업가정신 함양
- 단순 직업소개소에서 전문 직업능력개발센터로 탈바꿈

최첨단 기술 기반의 100개 신도시 개발 및 초고속열차(탄환열차) 구축 추진

▶ 정책과 결정과정의 개혁

- 정부의 정책실행능력 제고
- 공공의 이익을 위한 헌신
- 관료가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독려

▶ 고질적인 문제 해결 (poor delivery)

- 고질적인 애로점 제거 및 잃어버린 고리의 연결
- 목표달성을 위한 적합한 계획수립과 실행
- 미래지향적인 비전에 부합하는 규모와 속도
- 현재와 미래를 위한 기관 설립

▶ 신뢰성 위기 극복

- UPA정부가 추락시킨 정부에 대한 신뢰성 회복
- 정부의 책임감 강화

▶ 부패척결

- 전자정부 실현, 시스템우선, 정책위주의 가버넌스
- 조세 간소화
- 기존 법 개정과 신규법 제정 시 조언할 수 있는 전담반 구성

* 자료원 : Election Manifesto 2014(BJP 선거공약집)

<모디가 이끈 구자라트주의 경제·통상 정책 성과>

▶ 투자 유치를 위한 보조금과 세제혜택 제공

- 타타 자동차의 나노차 플랜트 건립에 957억 루피 상당의 막대한 보조금을 0.1%, 20년 상환이라는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
- 기업에게 토지, 인지세, 등록세, 전기세 감면 등 다양한 세제혜택 제공
- 보조금과 세제혜택을 통해 포드(Ford), 마루티 스즈키(Maruti Suzuki)등 추가적인 투자 유치

▶ 산업 인프라 건설

- 구자라트주의 해안선을 따라 분포된 41여 개의 항구와 내륙 사이 철도를 재정비
- 피파바브(Pipavav) - 수렌드라나가르(Surendranagar), 문드라(Mundra) - 아디푸르(Adipur)를 잇는 새로운 철도 건설 진행
- 구자라트주는 628억 루피에 달하는 항만건설 자금을 외국인 투자로 유치
- 5개의 신규 항만 건설(Maroli, Chhara, Vansiborsi, Mithivirdi, Bedi)하여 42MMTPA에 달하는 항만 수용력 증대

▶ 특별 경제 구역(SEZ) 조성

- 55개, 27,125 헥타르에 달하는 특별 경제 구역(SEZ) 조성
- IT, 멀티 프로덕트, 섬유 및 어패럴, 화학제품 등 다양한 특별 경제 구역을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노력

▶ 태양 에너지 발전소 건설

- 2012년 4월 총 용량 604.89MW 규모의 차란카(Charanka) 태양에너지 단지 조성을 완료
- 1,240km 길이의 나르마다(Narmada) 강에 1MW 전련 생산이 가능한 수로 복개형 태양 발전을 추진 중
- 전력 사정이 좋지 못한 인도에서 안정적인 전기 공급을 가능케 함.

▶ 성과 및 평가

- 구자라트주의 눈부신 경제발전은 나렌드라 모디를 인도 경제발전의 아이콘이자 카리스마와 변화를 대표하는 인도 정치의 선두주자로 만듦.
- 특히 투자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산업 기반 시설의 건설과 재정비를 통한 산업생산력, 효율성 향상이 높게 평가받고 있음.
- 하지만 모디의 집권기간 구자라트주의 평균적인 삶의 질이 저하되었고 도시 중상층 중심의 경제정책은 빈부격차의 확대를 가져왔다는 비판적인 시선도 존재
- 또한 지나친 보조금과 세제혜택으로 주정부의 단기적 수익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음.
- 경제 정책을 떠나 모디의 독선적인 성향과 힌두민족주의는 이에 대한 반발 및 우려인 '반모디'정서를 가져오기도 함.

2. 투자 정책 전망

□ 해외자본 유치 활성화를 통한 경제 부흥

- FDI 활성화 - 해외 자본을 유치하여 인도 경제 부흥 계획
 - 최근 2년간의 인도 경제 침체는 부진한 수출과 FDI(해외투자유치금액) 산업생산저조 등이 주요 원인으로 정부의 해외투자 유치를 위한 산업개방 노력은 원칙적으로 계속 될 전망
 - 해외 투자 진흥 부서(FIPBs((Foreign Investment Promotion Boards))의 역할이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당 부서를 통해서 투자 친화적인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됨.
- 인도 국민당(BJP)이 이끄는 신정부는 외국인 직접투자를 보다 적극적으로 유치할 것으로 기대
 - BJP의 공약집에 따르면, 경제성장을 정책기조로 삼은 BJP는 멀티브랜드 소매유통분야를 제외한 전 분야에 대해 FDI확대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됨.
 - * 모디 주총리는 활발한 투자유치 활동으로 구자라트주의 경제성장을 이룬바 있음.

□ Multi-brand 소비 분야를 제외한 외국인 직접 투자(FDI) 허용

- 전 산업에 걸친 적극적 FDI 유치
 - 인도 내 외국인 직접 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 FDI) 관련해서는 Multi-brand 소매 분야를 제외한 기타 분야 중 일자리나 자산, 인프라 창출이 필요한 분야라면 어디든지 허용될 전망이다.
 - 특히 건설, 철도 분야의 외국인 직접 투자(FDI)는 새 정부의 주된 관심사가 될 예정으로 외국인 직접투자(FDI)가 늘어날수록 인도 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게 될 것임.
 - 인도 국민당(BJP)은 중소 소매업자들과 중소기업들뿐만 아니라 그들 기업에 속해있는 직원들의 이익까지도 보호해 줄 것이며 인도의 투자 유치 촉진 위원회(FIPB)는 더 효율적으로, 더 투자자 친화적으로 변해갈 것임.

< 인도 FDI 추세 >



* 자료원 : 인도 중앙은행(RBI)

- 인도 산업 정책 진흥부(Department of Industrial Policy and Promotion, DIPP)에 따르면 2012-13 회계연도 4-12월 동안 제약 분야 외국인 직접투자 금액은 5억 8,900만 루피에 불과했지만 2013-14 회계연도에 2배 이상 증가
- 다국적 기업들이 인도 제약 회사들을 인수하자 인도 상공부(Commerce and Industry Ministry)는 외국인 직접투자에 관한 규제를 강화시키고자 했지만 인도 정부 내각(Union Cabinet)이 반대함.
- * 인도 정부는 미국 제약 회사인 Mylan Inc.가 516억 8,000만 루피를 투자하여 인도 회사인 Agila Specialties를 인수하는 것을 허가함.

○ 소매업 개방과 관련된 업계전문가의 반응

- 월마트(Walmart), 테스코(Tesco) 및 카르푸(Carrefour) 등 주요 글로벌 소매 기업은 인도 신정부의 정책이 쉽게 변경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면서 인도 기업과의 합작, 도매업 진출 등의 전략을 구사하고 있음.
- 모디가 유세 중 소매기업개방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은 사실이나 BJP의 공약 집을 통해 소매업 진출을 불허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였기 때문임.
- 인도의 소매업은 95%이상이 영세업자로 구성되어있어 정치적 결정이 쉽지 않은 분야이며, 현 정권은 이미 싱글브랜드 100%개방, 멀티브랜드 51%개방 등의 조치를 취한 상황이나 상품의 현지조달의무(30%) 및 세부 투자 의무 등의 조건 때문에 실질적인 투자는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음.
- 신정부는 유통·물류 혁신을 위해 소매업 관련된 규제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중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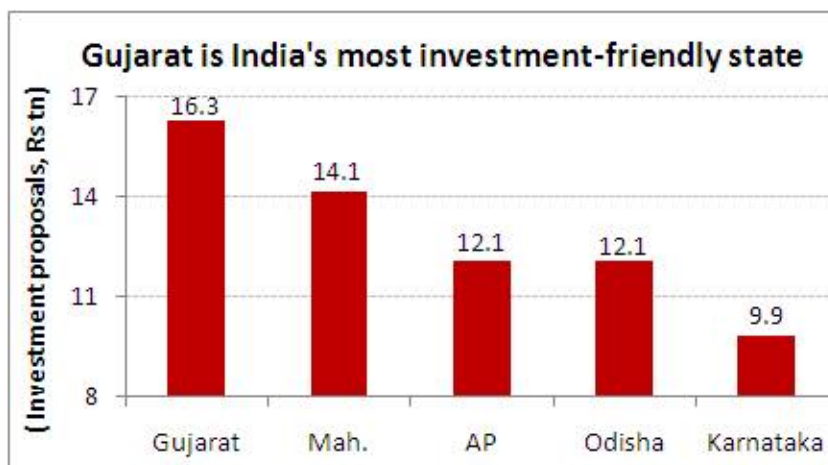
- 인도 소매업자연맹 프라빈(Praveen .K) 사무총장
 - “(과거)정부의 우유부단하고 불확실한 정책으로 지난해 멀티브랜드 소매업 FDI가 일부 허가됐으나 아직 이 분야에 외국인 투자는 없고, 여러 정당이 FDI를 반대하고 총선 결과에 따라 FDI규정이 어떻게 뒤바뀔지 모르는 상황에서 글로벌 소매업자는 인도시장 진출을 위한 투자결정을 보류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언급함.

< 구자라트주의 투자 정책 성과 >

▶ 구자라트주, 인도 내 2번째 투자유치지로 선정

- Gujarat, Maharashtra, Andhra Pradesh, Odisha 그리고 Karnataka 주는 인도 내 5개의 매력적인 투자 유치지로 손꼽힘.
- 인도 상공회의소 (The Associated Chambers of Commerce and Industry of India, ASSOCHAM)의 보고서에 따르면 구자라트주는 2013년 총 13조 9834억 7000만 루피의 투자액을 유치해 마하라슈트라 주에 이어 인도 내에서 두 번째로 투자를 많이 유치
- 구자라트주의 2013년 총 투자 유치액은 2011년 16조 2812억 6000만 루피에 비해 감소한 수치지만 여전히 인도 내에서 매력적인 투자 유치지로 뽑히고 있으며 특히 2013년 인도의 총 투자 유치액 중 전기, 서비스, 제조업 분야에서 각각 39.4%, 22.2%, 20.8%의 투자를 유치
- 또한 건설&부동산, 관개, 광산 분야에서도 각각 13.6%, 2.5%, 1.6%의 투자를 유치해 발전 가능성이 충분함.

<2011년 기준 인도 내 상위 5개 투자 유치지>



* 자료원 : Rediff.com

▶ 혼다 모터스, 구자라트주에 공장 건립 예정

- Honda Motorcycle & Scooter India (HMSI)는 110억 루피를 투자해 구자라트주 Ahmedabad 지역에 스쿠터 제조를 위한 공장을 설립하기로 결정함
- 새로운 공장은 2015-16 회계연도 하반기부터 운영될 예정이며 스쿠터 제조를 위해 2개의 조립라인을 보유하면서 3,000여 명에게 일자리를 제공

▶ 인도 국영 정유회사(Indian Oil Corporation, IOC), Koyali 공장 확장 예정

- IOC는 구자라트주 Koyali 지역에 있는 정유공장에 800억 루피를 들여 시설을 확장하여 공장 수용량을 2016-17 회계연도까지 연간 18 million tonnes로 늘리려고 함.
- 이로 인해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을 생산할 수 있게 될 것이며 공장의 수익성 또한 높아질 것임.

III. 인도 신정부의 주요 개혁 과제

1. 정부 부정부패

□ 부정부패로 인한 대외이미지 추락

- 인도의 부패지수(CPI: Corruption Perceptions Index)는 2013년 기준 177개국 중 94위, 뇌물공여지수는 2012년 기준 28개국 중 19위를 기록
 - * CPI는 국제 부패감시 민간단체인 국제투명성 기구(TI)에서 발표하는 국가별 부패인식 지수
 - * 뇌물공여지수는 국제투명성 기구가 고위공무원에게 뇌물을 줄 가능성을 설문조사
- 인도 중앙수사국 (CBI, Central Bureau of Investigation) 책임자는 인도가 2013년 기준 외국 조세피난처에 예치한 불법자금의 500억 달러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치라고 밝힘.

□ 만연한 부정부패, 인도 국민들의 대처방안

- 반부정부패의 상징, 제로 루피
 - 수많은 부정부패 사건이 벌어지자 인도의 5번째 기둥이라는(5th Pillar) 시민 자선단체(NGO)는 제로 루피(Zero Rupees)라는 모조지폐를 발행
 - * 시민들이 공무원으로부터 불필요한 뇌물을 강요받을 때 이를 거절하는 의미로 사용

<제로루피(Zero Rupees) 견본>



* 자료원 : 5thpillar.org

- 부정부패 반대, 반부패 사회운동가 ‘안나 하자레’
 - IAC(India Against Corruption)를 이끌고 있는 안나 하자레(Anna Hazare)는 의회와 중앙정부에 잔 로크 팔(Jan Lokpal)⁵⁾ 법안 통과를 요구하며 2011년부터 총6차례의 단식투쟁을 벌였음 이 법안은 인도 전 국민의 반 부정부패에 대한 관심과 호응을 불러일으킴.

□ UPA(통합진보연합)정권 시기의 주요 부정부패 사건

- 전 6집권세력(UPA)은 2G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과 관련된 부정부패 사건, 2010 영연방체육대회(Commonwealth Games)개최 관련 비리, 석탄채굴권 부당 배정 스캔들 등과 같은 연이은 부정부패 사건으로 부패 정당이라는 오명을 받고 있음.

□ 인도국민당의 부정부패 개선 공약

- 인도국민당(BJP)의 부정부패 개선 선거공약은 ‘정책의 투명성 강화, 해외 유출 블랙머니 국고 환수’등으로 요약됨.
 - BJP는 외국은행에 숨겨둔 블랙머니를 환수 할 수 있는 방안모색에 집중

□ 부정부패에 대한 현지기업 의견

- 아드띠야 비를라 그룹(Aditya Birla Group) 담당자
 - 정부 정책 및 규정들이 명확하지 않아, 공무원의 재량권이 크고 인허가를 받는데 몇 년씩 걸린다면 정부가 개혁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언급함.
- 힌두자 그룹의(Hinduja Group) 담당자
 - 부정부패로 인해 사회적 유대감형성, 경제성장, 외국인 투자 유입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언급하며 신정부는 특히 정치인, 관료, 산업계 간의 유착관계를 청산해야 한다고 강조

5) 공무원의 부패문제를 다룰 반부정부패기구와 옴부즈맨(공무원의 권력남용 등을 조사·감시하는 행정통제) 형태의 제도를 도입을 요구하는 법안

6) UPA는 INC를 주축으로 하는 연정으로 현재 집권세력임

2. 인도세제개편(GST, MRP, SAD)

가. GST(통합 물품소비세)도입

□ 인도 간접세 구조

- 인도의 간접세는 중앙정부 간접세인 소비세(Excise Duty), 서비스세(Service Tax), 관세(Customs Duty)와 주정부 관할 간접세인 부가가치세(VAT) 등으로 이루어짐.
- 인도의 간접세와 우리나라의 간접세 제도의 가장 큰 차이는 인도의 경우 용역(Service)과 재화(Goods)를 구별하여 용역에 대해서는 중앙 정부에서 과세하고 재화판매에 대해서는 주정부에서 과세하는 등 세목과 과세주체가 복잡하다는 것임.

□ GST의 의의

- GST(Goods and Services Tax)란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해 통합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함.
- 인도의 경우 헌법 제 245조에 따라, 중앙 정부는 생산단계의 재화와 용역에 대한 세금 부과권을 가지고, 주정부는 재화의 판매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할 수 있음.
- 따라서 모든 재화와 용역에 대한 포괄적인 부가가치세인 GST의 징수는 현행법상으로는 중앙 및 주정부 모두 불가능함.

□ GST의 체계

- 그간 여러 논의를 걸친 결과, 중앙정부와 주정부의 과세권을 보호하기 위해 이중 GST(Dual GST)형태로 도입될 계획
- 중앙정부 GST와 주정부 GST의 이중구조
 -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단일 GST체계를 가지나, 브라질, 캐나다 등과 같이 연방구조를 가진 나라에서는 중앙과 지방 모두 GST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Dual GST를 채택한 경우가 있음.

<Dual GST에 통합되는 조세>

중앙 GST에 통합되는 조세	주 GST에 통합되는 조세
- 주 소비세 - 상계관세, 특별부가관세 - 서비스세 - 교육세 및 부가세	- 부가가치세/판매세 - 연방판매세 - 지방세(오락세, 사치세, 복권세 등) - 서비스세 - 진입세

* 자료원 : 인도세법의 이해(주인도 대사관 국세관)

□ GST의 향후 전망

- 간접세를 통합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는 GST는 인도에서 현재 추진 중인 조세개혁 중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시행에 따른 긍정적 효과도 클 것으로 예상됨.
- 다만, 동 제도가 시행되기 위해서는 헌법 개정이 필수적인 바, 헌법 개정을 위해서는 연방 의회 및 주 의회의 동의를 거쳐야 함.
- GST의 도입으로 상당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인도 산업계는 전망
- 조세행정을 단순화하고 납세순응비용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연방과 주 정부 모두에게 안전하고 안정적인 과세기반을 제공하여 결국 조세수입이 증가
- 최근 급격한 경기침체로 조세개혁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으며, 신정부는 GST의 조기도입에 힘써야 한다는 것이 기업의 중론임.

나. MRP(희망소비자가)라벨링 제도 완화 및 특별 부가관세(SAD) 폐지

□ MRP(희망소비자가)라벨링 제도 완화

- 현행 MRP(Maximum Retail Price) 라벨링 제도는 통관 전 소매가격을 제품에 부착하도록 강제하여 수입물품의 관세를 상승시키고 수입자의 부담을 증가
- 외국기업 및 수입업자는 통관 전에 소비자가격을 책정하는데 있어 어려움.
- 이에 기업들은 제품을 일단 통과하고 수입자의 Warehouse에서 라벨링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동 제도 시행 완화 요구

□ 특별 부가관세(SAD) 폐지

- 관세의 일종인 특별 부가관세 SAD(Special Additional Duty)는 수입자가 부가세 납부 기업이면 환급 가능, 하지만 관세 환급절차의 복잡성으로 실제 환급받는 사례가 거의 없음.
- 따라서 동 제도(SAD 부과)를 철폐해 달라는 요구가 많으며, 불가 시 환급 절차의 개선이 요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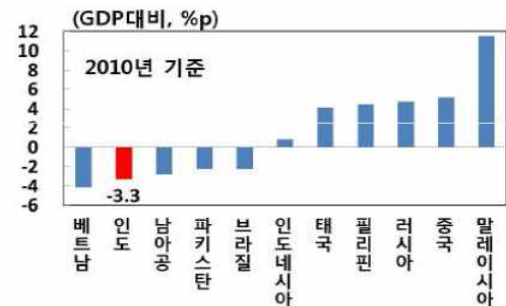
3. 인도 내수시장 개방

□ 인도투자, FDI(외국인직접투자)에 의존도 높아

- 인도, 빈약한 투자재원으로 외국인투자에 민감한 경제구조
 - 인도는 총 저축률이 국내 총투자율을 하회하고 있으며 저축과 투자의 차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더욱 확대됨.
 - 부족한 투자재원을 FDI로 상쇄시키고 있으나 2013년 대인도 FDI 유입액은 225억 달러로 전년 대비 36% 감소함.

< 연도별 FDI유입액 추이(좌) 및 GDP대비 저축-투자의 국제비교(우) >

연도	對 인도 FDI 유입액 (US\$ 백만)	증감율(%)
2009-2011	25,834	-18
2010-2011	21,383	-17
2011-2012	35,121	64
2012-2013	22,423	-36



* 자료원: 인도산업진흥부(DIPP, Department of Industrial Policy & Promotion),
IMF World Economic Outlook

□ 표면적인 개방정책과 달리 각종규제를 활용해 외국인투자 제한

- 인도의 높은 조세 부담은 투자기피의 주요원인
 - 인도는 외국기업에 대해 40% 수준의 높은 법인세를 부과
 - 더구나 2012년 3월 인도 정부는 만성적인 재정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해외기업에 대해 GAAR(General Anti Avoidance Rule: 포괄적 조세회피방지법안)을 도입키로 발표하는 등 공격적 과세 정책을 추진
 - 과거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도 소급과세가 가능한 GAAR이 발표되자 대인도 FDI는 급격히 축소되었으며, 그후 인도 경제의 위기 징후까지 언급되자 결국 인도정부는 2016년 까지 GAAR 도입을 연기한다고 발표

- 자국 산업보호조치 및 경직된 노동법규도 외국인투자의 둔화 요인
 - 2012년, 인도는 국내의약업체 보호를 위해 100% 개방을 허용했던 의약부문의 지분투자규제를 검토함.
 - 영세유통업자의 보호를 위해 멀티브랜드 소매업의 경우 100% 투자를 금지하는 등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외국인직접투자를 제한
 - 100명 이상을 고용하는 기업의 경우 폐업 및 근로자 해고시 정부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극도로 까다로운 노동법규 역시 장애요소임.
 - 인도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10년 연속 임금 상승률 1위로 인도의 연평균 급여인상률은 향후 3~5년 동안에도 12~15%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이는 많은 인구에도 불구하고 숙련노동자가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으로 인도정부는 정규 및 직업교육의 확충을 통해 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지원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 다수
 - 극심한 관료주의로 인한 인허가 지연 역시 인도의 투자환경을 악화시키고 있음.

4. 인도 산업 육성

□ 계속되는 제조업 침체

- 인도 제조업은 2013-14년 기준 -0.2%성장하며 1999년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기록
- 2013-14 회계년 기준 인도 경제성장률은 4.9%로 전년도 4.5%에 비해 개선되었으나 제조업의 경우는 전년 1.1% 성장에서 2013-14년 -0.2% 성장으로 후퇴하여 1999년 이후 최악의 성장률을 기록함.
- 인도의 제조업은 2005-11년 기간 중 연평균 10% 성장한 바 있으나 최근 2년간 침체를 거듭하고 있으며 2014년 2월 제조업 생산은 전년 동기 대비 3.7% 감소함.
- 치담바람 인도재무장관은 제조업부문의 경기침체와 투자저조를 우려하며 제조업 활성화를 위해 물품세를 4~6% 낮추겠다고 2014년 2월 정부 예산안을 통해 발표함.

< 제조업 부진의 주요 원인 >

- ▶ **고금리로 인한 내수**
 - 인도내 연간 자동차 판매규모는 각각 2012-13년 7%, 2013-14년 5% 감소됨
- ▶ **원자재의 수입 가격이 상승하여 수익성이 악화**
 - 현재 환율은 2011년 하반기에 비해 38%정도 절하된 수준으로, 인도 진출 기업들의 상당수가 환차손에 시달리고 있음.
- ▶ **인도 제조업 부문에서 해마다 불어지는 임금인상 요구**
 - 일부 인도 노동자들은 기존의 2~8배의 급여인상을 요구하는 등 인상요구 수준이 과도함.
 - 최근 도요타는 임금인상과 관련된 노사갈등으로 직장폐쇄를 단행한 바 있음.
- ▶ **과도한 정부 규제**
 - 인도 정부의 느린 의사결정과 복잡한 절차 때문에 상당수의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이 지연되고 있음.
 - 2008년과 비교해 제조업 분야 신규프로젝트 수는 70% 감소하였으며 특히 부지확보가 큰 문제
- ▶ **부품과 완제품의 관세 역전**
 - 전자, IT 등 일부 분야에서 완제품의 수입관세가 부품의 수입관세보다 낮아 일부기업들은 인도 현지생산보다 제품수입을 선호함.

□ 제조업 개선 방향

- 많은 전문가들이 인도정부의 과감한 개혁조치를 요구
 - 정책의 투명성 및 예측성 강화와 신속한 인허가 의사결정
 - 수 년째 도입이 지연되고 있는 GST(통합 물품 서비스세)의 빠른 도입
 - 물류인프라 확충 및 전력공급의 안정화등 제조기반 육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 인도 국민당(BJP)은 3년 내 연 8% 성장을 달성한다는 목표아래 적시에 인허가를 완료하고 산업단지를 확장하며 신규투자를 유치하여 제조업을 육성하겠다고 발표함.

< 인도내 제조 인프라의 문제점 >

▶ 물류

- 낙후된 항구시설과 항구로 들어오는 복잡한 접근로 때문에 수입, 수출을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요구됨
- 낙후된 도로 때문에 하루 300Km 이상의 트럭수송 불가
 - 400Km 거리인 첸나이-방갈로르 사이의 철도화물수송에는 48시간이 소요
 - 낙후된 도로 인프라로 인도 투자기업들의 대부분은 이동 중 제품이 파손되는 손해를 경험

▶ 전력

- 전력공급의 부족으로 공장운영에 제약이 많으며 자가 발전시설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과다한 비용 발생(첸나이 공단의 경우 하루 10시간 이상 단전)
- 빈번하게 일어나는 정전은 생산라인을 갑작스럽게 중단시켜 불량품 증가
- 공급되는 전력의 양도 정해진 것보다 적으며 공급전력의 질도 문제임

▶ 물(산업용수)

- 강화된 산업용수 공급 관리규정은 공장가동에 큰 문제가 되고 있음
- 산업용수 공급 허가에 상당한 기간 소요

IV. 신정부 출범에 대한 기대와 평가

1. 신정부 출범에 대한 인도 국내 반응

□ (언론)제1야당연정의 승리에 대해 기대와 우려를 포함

- 구자라트주의 성공적인 경제발전의 사례가 인도 전역으로 퍼져 침체된 인도경제의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
- 아울러 '13.9월에 취임한 인도 중앙은행 라구람 라잔 총재와 물가상승억제를 공약으로 내건 나렌드라 모디의 협력 플레이도 기대됨.
- 한편, 무슬림이 많이 있는 지역에서는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음. 나렌드라 모디의 독선적 성향과 힌두민족주의 성향이 사회적 불안을 야기시킬 수도 있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들림.

○ 언론인 인터뷰

Ankit Panda Associate Editor at The Diplomat Magazine	○ BJP의 나렌드라 모디 후보의 선거에서 승리는 모디가 구자라트 주총리 시절 성공적으로 이루어낸 외자 유치에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고려됨. 모디의 지지층들은 정부의 부정부패와 식품 인플레이션, 루피화 약세, 경제 경직화 등의 문제들이 미래 정부에 의해 개선될 것으로 예상 ○ 모디 정부는 외국인직접투자를 중점적으로 진행할 것으로 보이며, 또한 인도 각 주 단위로 독립적인 외국인직접투자 유치가 장려될 것으로 전망
Ur Bhat Director at Dalton Capital Advisors India	○ 최근 주식시장은 연일 상한가를 치고 있으며, 인도 투자자들도 총선 이후 출범할 강력하고 결단력 있는 정부 전망에 대해 매우 기대. 현재 인도 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더딘 경제 성장률, 인플레이션 상승, 투자 유치 등의 문제 해결 희망

□ (경제계) 신정부가 추진하는 모디노믹스에 대한 경제부흥기대

- 작은 정부와 자유로운 경제활동 장려로 요약되는 모디노믹스를 통한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
 - 인도 증시 벤치마크인 센섹스 지수가 올들어 5.69% 가량 오르는 등 가파른 상승세를 보임.
 - 루피화 역시 올 1분기 2.6%의 상승세를 기록하며 '12년 말 이래 최고 성적으로 고공 행진하고 있음.
- 멀티소매유통업을 제외한 전 산업분야의 외국인투자 허용 확대에 따른 경제 활성화 예상
- 한편, 모디의 글로벌 개방정책이 저소득층, 노동자들에 대한 보호막을 사라지게 해 복지 및 분배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음.
- 인도 경제인 인터뷰

Vedanta Group (비철금속 및 광업개발)	○ 빈곤퇴치와 고용창출은 현재 인도의 최대관심사로 고용창출을 위해 제조업 육성과 천연자원 개발이 필요 ○ 신정부의 강력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광산·제조업 분야의 육성이 이루어진다면 최대의 고용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 ○ 광산, 제조업분야 육성을 위한 천연자원 개발 확대와, 공공부문의 지분 민영화 정책 희망
--	--

Murugappa Group (금융, 보험, 제조업 등)	○ 지난 10년간 UPA가 해온 정책은 부정부패, 제정적자 등 전반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었고, 전 정권의 집권기간은 인도 산업부문에 있어 재앙이라고 생각 ○ 제조업 육성을 위하여 전력, 도로 등 기본 인프라의 개선도 중요하며 비료 및 농업분야의 투자가 병행 되는 한편 섬유, IT, 가축 등 수출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해야 하며 고부가가치 성장산업에 도입이 필요 ○ 제조 산업 확장 실현을 위해서는 다양한 정당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리더십이 필요한데 인도 국민당(BJP)은 많은 연정파트너들과 지지정당을 보유하고 있어 안정된 정부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제조업 성장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
--	---

Saint Gobain India (전자재 제조업)	○ 전 정권이나 신 정권이나 정책의 추진 방향에서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봄. 하지만 전 정권에 비해 BJP정권은 실행력이 뛰어나. ○ 최근 일본의 인도 투자가 매우 활발함을 고려하면 모디 총리 후보는 일본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징조. 다만 미국과는 관계개선이 필요하고, 중국과는 신중한 접근 필요 ○ 경제적으로는 재정적자 개선, 수출확대의 정책 추진과 제조업의 고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노력 필요함 ○ 신정부는 정규교육, 직업 및 기술교육의 강화로 산업현장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해야 하며, 한편으로 산업육성 및 경제 활성화로 일자리 창출 필요
East Asia Division at Federation of Indian Chambers of Commerce and Industry (FICCI)	○ 새로운 정부 출범으로 인도 시장 및 경제가 점차 안정되기를 바라는 바임. ○ 경제와 통상 관련 사항들에 대한 총체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지는 않지만, 5월 이후 신정부 출범이 확정되는 대로 미루어져 있던 현안들에 대한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 ○ 현재로서는 인도의 새로운 경제 정책에 대한 전망이 밝으며, 지속적인 개선을 기대함. 또한 신정부 출범 즉시 약 6%의 경제 성장률을 예상
Shantala Group (엔지니어링)	○ 힌두 성향이 강한 나렌드라모디를 중심으로 인도 국민들의 단합과 산업기반 경제개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 하지만 무슬림이 많은 방갈로르에서 반대당의 여파도 무시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 ○ 국내외 기업의 투자 증가 예상. 방갈로르에서 건설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고, 외국인들의 투자가 상대적으로 높고 쉬운 부동산, 건설 분야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 ○ 인도 주변국은 파키스탄, 동남아 일부 국가를 포함하여 무슬림국가가 많은 편이며 종교에 민감한 문제 발생이 우려되나 외국 기업에는 개방적인 점을 들어 한국 및 서방국과는 교역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

HCL Technologies Ltd. (IT 서비스업)	○ 경제성장률이 성장에 따라 인플레이션 감소와 물가가 안정권에 들어설 것으로 예상됨. 또한 현재 인도 루피의 변동 역시 안정화 될 것이며 일자리창출 기대 ○ 인도 국내 기업 같은 경우 제조업이 활성화될 것이며 외국기업들은 인도의 투자가 더욱 증가될 것 ○ 특히 나렌드라모디는 친 기업 전략으로 구자라트 주를 10%에 달하는 경제성장을 달성하게 하여 이것이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
Nysa builders and developers (부동산 개발)	○ 나렌드라 모디의 구자라트 경제발전에 주목하고 있으며 고용창출, GDP 성장, 수출 증대, 인플레이션 감소 등이 예상되고 있어 총리가 된다면 경제 부활 기대 ○ 국내외 기업의 인도 사업 기회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제조업과 농업 활성화 전망. 하지만 소매업은 감소 가능성 높음. ○ 나렌드라 모디는 한국을 방문한 적이 있으며 이로써 한국과의 관계가 증진 기대. 또한, 종교적인 영향은 크게 미치지 않을 수도 있어 주변국과는 현재 관계가 유지 전망

□ 신정부 출범에 대한 인도 국외 반응

- 신정부 출범에 대한 주요국 정치·경제·언론계 반응
 - (일본) 아베 총리와 인도 나렌드라 모디 총리 후보는 모두 민족주의자, 강경파 보수 주의자로 많은 부분에서 공통점이 많은 인물로 평가됨. 나렌드라 모디의 친일본 성향은 향후 일본 기업의 대인도 진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됨. 일본은 인도와의 협력 강화를 통해 중국 견제를 도모함.
 - (중국) 인도 신정부와의 전략적, 정치적 대화를 강화하고 양국의 상호이익 증진을 위한 방안을 모색 중으로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국방교류 및 협력을 통한 지역평화 발전 및 통합에 노력을 기울임. 특히, 방글라데시-중국-인도-미얀마로 이어지는 회랑은 상호 경제발전의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됨. 그러나, 중국과 인도와의 오랜 국경분쟁 문제 및 최근 중국의 인도양 지역 세력 팽창 전략에 따라 양국의 긴장관계는 불가피함.

- (미국) 인도 신정부의 외교, 통상투자 정책과 관련해 불편한 입장임. 인도 국민당은 핵무기 先사용 금지 정책 재검토를 공약으로 세운바 있으며, 이는 오바마 정부가 추진하는 핵감축 전략과 대치됨. 또한 미국은 인도의 소매 유통 부문 FDI개방을 희망하고 있으나, 인도 신정부는 동 부문 개방을 반대하고 있는 상황임.
 - * 인도 국민당은 외교정책의 방향으로 강대국의 이해관계에 이끌려 다니지 않고 인접국들과의 친교형성에 집중하겠다고 밝힌바 있음
- (대만) 인도의 신정부 수립 및 나렌드라 모디 총리 후보의 당선에 긍정적 입장을 표함. 이를 통해 구자라트주에 건설예정인 철강공장에 대한 허가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 나렌드라 모디는 구자라트주 총리 역임 당시 인도국민당의 사무총장 자격으로 대만을 방문한 바 있으며, 2011년에는 대만에서 가장 큰 비즈니스 사절단을 주최함
- (외국인 투자기업) 신정부는 소매 유통 분야 FDI개방에 대해 매우 非우호적인 입장으로 이에 따라 월마트, 까르푸 등 글로벌 유통업체들은 우려를 나타냄.
 - (월마트) 신정부 출범에 맞춰 기존의 투자 방향을 선회하여 대형 온라인 도매몰을 두 곳에 시험운용 하고, 성공 시 전국적 확장 계획을 발표함.
 - * 세계최대 도·소매 업체인 월마트의 인도 온라인시장 진출은 빠르게 성장하는 인도의 유통시장에 대한 새로운 도전이라고 평가받고 있음. 현재 월마트는 인도의 Bharati 그룹과 6년여 간의 합작이 종료된 상태
 - (까르푸) 현재 인도시장에서 운영하고 있는 도매점들의 사업실적이 예상을 크게 밑돌자, 인도사업을 종료하기로 결정함. 이와 같은 결정에는 소매 유통 분야 FDI 개방에 非우호적인 신정부의 투자 정책도 한 몫을 함.
 - (혼다) 신정부의 기회균등 정책에 따른 농촌지역에 대한 각종 투자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하고, 이에 발맞춰 인도 중·소도시 지역을 집중 공략하는 마케팅계획을 발표함.
 - * 현재 30~32% 정도에 달하는 지방판매 점유율을 향후 40~42%로 증대시킬 계획을 세우고, 이를 위해 2015년까지 추가 증설 매장의 70%가량을 지방에 오픈할 예정
 - (GE헬스케어) 인도의 경제상황이 단기간 내에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향후 인도 제조업 발전의 가능성을 높이 평가하며 산업장비 및 인프라 부분의 투자를 증대할 것임을 언급함.

2. 인도 진출 우리 기업의 반응

□ 모디노믹스 효과에 기대감

- 親기업 정책을 펼치고 있는 BJP 정권에 높은 기대감
 - 우리 진출기업들은 내수판매 부진 및 환차손이라는 이중고에 직면해 있는데 경제개혁 및 투자유치를 내세운 BJP정권이 집권하면 이러한 상황이 다소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희망
 - 인도 루피화는 2년전에 비해 35% 가량 절하되어 대규모 환차손을 겪고 있으며 인도의 산업기반이 열악해 원자재를 현지화하는 것에도 애로를 겪고 있음.
 - 한편 자동차 판매가 2년 연속 감소하는 등 유례없는 경기침체와 내수시장 위축 때문에 빠른 경기회복 및 내수판매 정상화를 신정부에 기대
- 부정부패가 심한 인도 정치 변화 기대
 - 전 집권당의 부진한 경제성과와 부정부패로 인하여 인도인들뿐만 아니라 현지에 진출한 대다수의 기업들로부터도 혹평 이에 나렌드라 모디가 이끄는 신 BJP 정권의 부정부패 척결을 통한 기업환경 개선 기대

□ 인도 우경화에 대한 우려

- 우리 기업이 신정부에 큰 기대를 거는 한편, 모디 총리 후보가 힌두민족 주의자이고 많은 논란의 중심에 있다는 점에서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음.
 - BJP는 이미 공약집을 통해 민법통합 등 친힌두 정권의 추진을 천명
 - 모디 주총리가 주도하는 BJP가 집권하게 되면 한디-무슬림 등 종교 갈등이 더욱 첨예해질 가능성이 있으며, 중국 및 파키스탄 과의 갈등도 더욱 심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한편 외국인에 대한 반감을 조성하고 외국기업에 대해 배척하는 입장을 취할 수도 있을 것으로 우려

□ 미국의 출구정책으로 인한 인도 내 영향이 걱정

- 미국의 출구전략에 디폴트 리스크가 큰 인도는 외국인 투자비율이 25%이 상으로 자금유출에 가장 취약하여 부실위험 상승 우려

- '14년 4월 국제통화기금(IMF)은 미국의 출구전략으로 글로벌 금리가 오르고 신흥국의 통화 가치가 하락하면 신흥국 기업의 35%가 디폴트위기에 처할 수 있다고 크게 경고
- 세계 증시가 안정치 못한 상태에서 BJP당에서 제시한 친기업 정책이 실질적으로 시행될 수 있는지 의문 제기

□ 인도 진출 기업 인터뷰

인도 진출 A사 현지 법인 (무역)	○ 신정부 출범과 더불어 개혁, 외국인 투자 확대 및 인프라 투자 등을 통한 경제 회복 속도 가속화 기대하고 있으며, 부의 분배 문제 등 근본적인 인도 사회 변화 또는 발전 기대 ○ 물가 상승률 관리와 더불어 경제 활성화를 최우선 정책 과제로 추진할 것으로 기대하나 소매부문 외국인 투자 개방 등 일부 정책에 대해서는 속도 조절할 것으로 예상 ○ 환율 상승, 물가 상승 및 고금리 유지 또한 인상이 대 인도 교역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
인도 진출 B사 현지 법인 (금융)	○ 보조금 정책은 줄이고 외국인직접투자 유인에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함. 이로 인해 외국 자본 및 기업 인도 투자 증대로 경제는 좋아질 것으로 전망 ○ 한국 기업의 인도 투자 시 예전보다 많은 기회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기타 국가 중 중국의 경우 많은 덤핑 규제 등이 예상
인도 진출 C사 현지 법인 (운송)	○ 이미 현 정부의 장기 집권에 따른 각종 부패 및 실망감이 팽배해 있으므로, 새 정부의 출범에 대한 변화와 개선이 진행 될 것으로 전망 ○ 특히, 신정부의 유력 후보자인 모디 주총리가 구자라트 주에서 보여준 성과는 향후 변화와 개선을 더욱 기대하게 함. 구체적인 정책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으나, 기존 구자라트 주총리 재직시 보여준 성과는 놀라우며, 특히 친기업 정책 등에 대해서 희망적이라고 생각 ○ 하지만 신정부가 출범했음에도 불구하고 변화와 개혁을 이루지 못하면, 향후 인도 경제가 밝지 않다고 판단됨 만성적인 재정적자, 부패, 인프라 부족 등의 획기적인 개선 없이는 경제 성장을 지속할 수 없다고 전망

인도 진출 예정 D사 (철강)	○ 인도 오리사주 제철소 건설프로젝트의 재계 기대 ○ 지난 1월 한-인도 정상회담이후로 10여 년간 지체된 제철소 건설프로젝트재계에 기대감 실려
인도 진출 E사 (자동차)	○ 시장점유율 1위를 차지하기 위한 공격적 마케팅 ○ 인도 정부의 2014~2014년도 예산안 중 눈에 띄는 조치로 자동차 소비세 경감이 있음. 이에 현대차를 비롯한 자동차 업계는 적극적인 가격 인하로 화답하고 있음. ○ 총선 이후 경제회복에 대한 소비자심리는 자동차 구매 확대로 이어질 전망

3. 향후 인도 경제 전망

□ 신정부의 과감한 경제정책을 통한 인도 경제회복 예상

- IMF는 2014~2015 회계연도 인도 경제성장률을 5.5%로 예상, 2015~2016년에는 6.25%로 내다봄.

* 2013~2014 회계연도 인도 경제성장률은 4.9%로 십년만의 최저치 기록

- 총선 이후 인도 경제는 당분간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지만, 신정부가 경제개혁과 부패 척결이라는 과제를 해결한다면 하반기부터 경제가 서서히 회복되어 2014년도 5%대 성장은 무난할 것으로 평가됨.

- Standard and Poor's(S&P)는 신정부의 효율적인 경제정책 실행 및 재정 정책, 그리고 상품서비스세 도입여부 등에 따라 인도의 국가신용등급평가를 재조정할 것을 시사

* S&P는 3대 신용평가사 중에 유일하게 인도경제전망을 부정적으로 바라봄.

- 최근 인도중앙은행의 적극적인 경기안정화 정책과 신정부의 설립은 향후 인도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표출됨.

- 최근 인도의 물가와 환율은 하락하고 주가는 상승하며 산업생산지수는 회복세를 보이는 등 경제전반이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앞으로 인도경제가 깊은 침체에서 벗어나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확대되고 있음.

* 인도 경제일간지 The Economic Times는 지난 4월 12일자에 경제자문기관들의 인용을 통하여 인도경제가 현재 급속히 회복되고 있으며, 이러한 회복세가 지속될 경우 장기적으로 8%까지 회복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함.

- BJP당에서 발행한 선거공약집에서 언급한 “Good Governance”와 “Inclusive Development”과 함께 인도의 경제 재성장을 초점을 두고 있어 경제성장이 0.5~1% 정도 추가 상승 전망

□ 새 정부의 경제 개혁에 따라 국내외 투자 유입 증가 예상

- 인도 전역을 해안지역에 따라 건설되는 철도망 건설 프로젝트인 ‘다이아몬드 사각형(Diamond Quadrilateral)’이 활성화되어 국제입찰에 부쳐질 경우 한국 등 고속철 건설능력을 가진 국가들의 관심 상승

- 외국인직접투자(FDI) 개방 분야 확대, 신도시 100개 건설, 세계 수준의 항만건설, 중소도시 공항건설, 세제 개혁, 제조업 분야 육성 공약을 발표함에 따라 기업들의 사업참가 기회증가와 경기가 부양이 예상되며 인건비 부담 감소 등 간접적 효과로 장기적으로 경제가 성장할 것으로 기대

□ 인도 경제 회복, 외국인 투자 환경 변화 개선은 시기상조

- 총선 이후 경제개혁에 대한 기대가 지나치게 높아져 있어 중장기적 관점에서 인도 경제 회복은 속단하기 이르는 다는 의견
 - 인도 신정부의 성공적인 경제회복은 경제구조 개혁, 재정의 건전화, 인플레이션 압력 해소, 경상수지 개선 등을 위한 노력을 어느 정도하는지에 달려 있다고 평가됨.
- 이번 총선에서 최대 규모 예산집행, 유세 지출이 49억불에 달하고 있어 총선이후 인플레이션과 경상수지 적자 확대 우려
- 지난 정부역시 친화적인 외국인 투자 환경을 약속했지만 보다폰, 노키아의 세제 이슈 그리고 최근 삼성전자 이슈를 볼 때, 외국인 투자 환경이 실질적으로 향상될 지는 의문이라는 의견
 - * 신정부는 외국인들이 가장 관심이 높은 멀티소매유통업의 FDI 추가 개방에 반대

V. 한국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1. 신정부 경제 정책에 따른 기회요소

□ 제조업 장려 정책에 따른 현지투자진출 기회 활용

- 인도 신정부는 조세감면, 특별경제지역지정 등을 통해 고부가가치 상품 제조업을 장려하는 정책을 펼칠 전망
- 한국이 경쟁력이 있는 자동차, 가전, 기계류 및 인프라관련 발전, 송배전, 도로, 항만 등 분야에 적극 투자할 필요가 있음.

□ 경제 회복을 위한 각종 규제 철폐 및 완화정책 시행

- 친(親)시장 경제를 앞세운 경제정책에 따라 인도에 진출한 우리기업의 공격적인 사업 확대 가능
- 향후 인도 진출을 계획 중인 우리기업에서도 좋은 기회를 제공

□ 인도 경제 호전과 함께 한국 및 신흥국 경기회복에 긍정적 영향

- 지난해 신흥국 위기의 중심에 서 있던 인도 경제가 호전되면서 한국을 비롯한 신흥국 경기회복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됨.
- 또한, 외교적으로 중국, 미국 등과 경쟁관계인 인도는 아시아의 경제 개발과 발전에 주목하고 있으며 한국, 대만, 싱가포르, 태국 등과의 경제 협력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한국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할 호기가 될 수 있음.
- 인도 신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인프라 개발, 제조업 육성, 투자를 병행하는 인도 시장 진출 등에 한국기업의 기회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

2. 신정부 경제 정책에 따른 위협요소

□ 힌두 근본주의 표방에 따른 사회적 분열 우려

- 지나친 힌두중심의 국정운영으로 다양성의 나라인 인도에 사회적 분열이 심화되어 테러, 폭력사태 등 사회불안 발생 가능성 증대
- 인도국민당은 인도 고유의 종교와 문화를 수호하는 정당임을 자처하며 힌두 근본주의 입장에서 위대한 인도로의 회귀를 슬로건으로 채택함.
 - * 나렌드라 모디는 '02년 구자라트주 총리 당시 극우파 힌두교도가 2천 여명의 무슬림을 살해한 고드라 사건을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는 등 극우이미지의 꼬리표 존재

□ 소외계층 포용을 위한 복지 정책 미비

- 신정부의 정책방향은 경제 활성화, 친기업, 물가 억제 등을 위주로 설정되어 있으며 소외계층 포용을 위한 뚜렷한 복지 정책 발표는 없음.
- 경제위기 타개에만 집중된 정책방향은 추후 복지 및 분배에 대한 사회 불만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음.

□ 인도, 중국 견제를 위해 일본과 협력강화

- '14년 1월 일본-인도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관계증진 및 협력강화에 합의
- 양국 간 안보협력으로 일본은 인도에 구난용 비행정과 원자력 발전 설비를 수출할 수 있게 됨. 최근 반(反)일본 정서가 만연한 중국 대신 인도 진출에 속도를 내는 일본 기업이 급증
- 이에 따라 일본기업과 경쟁관계에 있는 한국 기업에게는 불리한 요소로 작용 가능성 존재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불협화음

- 중앙정부와 주정부 이원체제로 이루어진 인도 행정 체계상 중앙정부의 권한이 크지 않아 신정부의 정책추진이 주정부의 협조를 얻지 못할 경우 장밋빛 전망을 바라고 투자한 기업들이 큰 손해를 입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3. 한·인도 교역 및 투자 전망

□ 한-인도 CEPA 효과 본격화

- 한-인도 CEPA는 2010년 1월 발효되어 올해로 발효 4년차에 접어들며 관세 인하폭이 더욱 커져 FTA 효과는 점점 커질 것으로 기대
- 지지부진하던 한·인도 CEPA 업그레이드 협상은 '14년 1월 16일 열린 한·인도 정상회담을 계기로 급물살을 타게 될 예정
- * 협정 발표 이후 2년간 약 70%의 양국 간 교역규모 증가라는 가시적인 효과도 있었으나, 한국이 체결한 다른 FTA에 비해 그 활용률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

□ 인프라, 제조업, 석유화학, IT 등 분야에 진출확대 예상

- 외국인투자 개방의 주요 수혜분야인 인프라, 제조업, 석유화학, IT 등을 중심으로 우리기업의 진출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박근혜 대통령의 인도 방문 시, 한국 중소기업이 인도에 판로를 개척해 글로벌 IT 시장에 진출하는 인도 IT 산업 진출 플랫폼 구축

□ 한국 전용공단 조성 추진

- 인도 중앙정부 및 주정부의 인센티브, SEZ(특별경제구역)의 기업유치 인센티브 등을 분석하여 한국기업의 최적의 투자대상 및 지역 발굴 추진
- 인도 전역에 분포된 산업별 클러스터 내에 입주하는 전문 한국기업공단을 권역별로 조성하는 방안 검토
- * 2014년 한-인도 정상회담 공동선언문에 포함되어 현재 양국 정부의 협력 하에 추진 중인 라자스탄주 산업단지가 조성 완료되면 한국 중소기업의 투자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

2014년 KOTRA 발간자료 목록

□ GMR (Global Market Report)

번 호	제 목	발간일자
14-001	경제제재 완화대비, 對이란 10대 수출유망품목 및 진출방안	2014.1
14-002	2014년 1분기 KOTRA 수출선행지수	2014.1
14-003	유럽 신재생에너지시장 재편에 따른 시사점 조사 - 1편 -	2014.3
14-004	유럽 신재생에너지시장 재편에 따른 시사점 조사 - 2편 -	2014.3
14-005	유럽 신재생에너지시장 재편에 따른 시사점 조사 - 3편 -	2014.3
14-006	한미 FTA 발효 2년, 대미 수출성과 분석	2014.3
14-007	한-캐나다 FTA 15대 수출유망품목	2014.3
14-008	2014년 2분기 KOTRA 수출선행지수	2014.3
14-009	한-호주 FTA 중소기업 수출 유망품목	2014.4
14-010	유럽 경기전망 및 주요 산업별 기상도 - 1	2014.4
14-011	유럽 경기전망 및 주요 산업별 기상도 - 2	2014.4
14-012	유럽 경기전망 및 주요 산업별 기상도 - 3	2014.4
14-013	한-터키 FTA 1주년 효과분석 및 시사점	2014.4
14-014	국내외 기업의 우리나라 FTA 활용전략	2014.4
14-015	인도 신정부 경제정책 방향 전망과 시사점	2014.5

□ KOCHI자료

번 호	제 목	발간일자
14-001	중국을 읽는 50가지 키워드	2014.1
14-002	후베이성 자동차부품 산업현황 및 진출전략	2014.2
14-003	[중국 경제학자 초청 좌담회] 2014 중국 경제 전망	2014.2
14-004	중국 농식품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2014.3
14-005	양회 이후 중국의 경제정책과 시장환경 변화: 분야별·업종별 영향과 우리의 대응	2014.4

□ KOTRA자료

번 호	제 목	발간일자
14-003	2013 KOTRA 글로벌 CSR 종합보고서	2014.2
14-004	2014 글로벌 취업창업대전 결과보고서	2014.2
14-005	외국인투자가를 위한 환경분야 Q&A	2014.4
14-006	2014 중국 개정 상표법 신규대조표	2014.4
14-008	2013 외국인투자옴부즈만 연차보고서	2014.5
14-009	Foreign Investment Ombudsman Annual Report 2013	2014.5
14-010	EU기금을 활용한 공공 프로젝트 수주방안	2014.5
14-011	SEOUL FOOD 2014 디렉토리 책자	2014.5
14-012	UAE 매립지 프로젝트 전문가 합동조사 보고서	2014.5
14-013	2014 아시아 주요국 투자환경 비교조사	2014.5
14-014	2014 U턴기업 지원 종합가이드	2014.5

□ 설명회자료

번 호	제 목	발간일자
14-001	2014 전략시장 협력 파트너쉽 포럼	2014.1
14-002	2014 글로벌 투자유치전략 설명회	2014.1
14-004	3중전회 이후 중국경제 환경변화와 대응방안	2014.1
14-005	개성공단 입주기업 해외마케팅 지원 설명회	2014.3
14-006	韓中服務産業优秀企業投資交流會	2014.3
14-007	중국 개혁개방 2.0시대 - 유망 서비스시장 진출방안 설명회	2014.3
14-008	아프리카 중소형 플랜트 협력 포럼	2014.3
14-009	양회 이후 중국경제 환경변화와 대응방안 설명회	2014.4
14-010	(서울식품전 연계) 한중 식품산업 전략적 투자유치설명회	2014.5
14-011	2014 Global Project Plaza	2014.5

작성자

◆ 뉴델리 무역관	김상환 차장
◆ 뭄바이 무역관	조동준 과장
◆ 방갈로르 무역관	조수정 사원
◆ 첸나이 무역관	정다운 사원
◆ 신흥시장팀	박정현 과장
	김태룡 대리

Global Market Report 14-015

인도 신정부 경제정책 방향
전망과 시사점

발 행 인 | 오 영 호
발 행 처 | KOTRA
발 행 일 | 2014년 5월 16일
주 소 | 서울시 서초구 현릉로 13
(우 137-749)
전 화 | 02) 1600-7119(대표)
홈페이지 | www.kotra.or.kr
www.globalwindow.org

Copyright © 2014 by KOTRA. All rights reserved.
이 책의 저작권은 KOTRA에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한국 내에서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